20121018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치 사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을 통해 우리나라에 선과 차가 뿌리 내린지 어언 천여 년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윽하게 퍼지는 차향처럼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로 그 전통이 이어져 왔으니 청명한 계절의 기운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는 2005년 10월 조주선사의 끽다거 발원지인 허베이성 백림선사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대만 불광사(佛光寺)를 거쳐 여산 동림사(東林寺), 푸딩 자국사(資國寺), 닝보 칠탑사(七塔寺), 항저우 영은사(靈隱寺) 등, 중화권에서 꾸준히 개최되었고 올해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는 2003년 5월 한국의 <차의 세계>가 발기하여 유가의 정기, 도가의 청기, 불가의 아기가 서로 융합하면서 동아시아 일대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근세차를 중흥시킨 초의선사는 한국의 차나무는 중국과 같지만 색과 향기와 효능과 맛에 있어 중국과 차별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수행일화에 차나무의 기원이 담겨 있듯이, 차를 따르며 수행을 점검하던 선사들은 그 시간조차 여유로만 삼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선과 차는 둘이 아닌 하나로 여기기도 했으며, 신라의 무상 선사가 중국에 입당구법하여 선차지법(禪茶之法)을 쓰촨성에서 제창한 이래 송나라 시기 원오극근 선사가 다선일미를 들고 나오니 선과 차는 대중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선차는 불교의 맥과 흐름을 함께 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하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대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